

2009년 등급판정결과 돼지부문 우수농가

창평농장 - 윤석권 대표

대전충남지원 출장소장 이신순



윤석권 대표

우리나라 '인삼' 생산지로 유명한 충청남도 금산군에 '창평농장' (대표 윤석권)이라는 농장이 있다. 윤석권 농가는 1983년 돼지 사육을 시작하여 출하한 돼지에 대한 등급판정결과 분석을 토대로 하여 고급육 생산 및 사육 방법 개선에 노력한 결과 2009년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로 선정되었다.

비결은 '기본에 충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 '인삼'

등급판정결과 우수상을 받게 된 비결에 대해 문의하자 윤석권 농가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다만 기본에 충실하게 사양 관리했을 뿐이죠!" 라고 소탈하게 말했다. 출하일령을 생후 190일 이상으로 유지하고 성별에 따라 분리 사육하면서 생체중 116kg에 도달하는 돼지를 선별·출하 하는 것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고급육 생산 비결이었다. 그리고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출하일 30일전부터 인삼이 첨가된 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것이 육질 차별화 비결이라고 언급하였다. 겸손함과 성실함이 배어있는 말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길을 걸어온 축산 경영인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었다.

맺음말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 그리고 사람의 정성'으로 인삼이라는 산물(産物)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돼지 사육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단기간의 요령보다는 돼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차근차근 사육 방법을 개선해 가는 창평농장의 앞날에 더욱더 밝은 내일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